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줄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4 호 / 발행일 : 2003년 10월 12일

MT로 하나가 되었어요!

10월 2일 목요일, 청년 2부 40여명은 오후 8시 교회에서 모여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복민교육원으로 MT를 떠났다. 복민교육원(www.blessed.or.kr)은 경건과 침묵, 그리고 만남을 위한 30명 정도의 모임을 지향하는 집으로 1997년에 준공되었다.

밤 11시 쯤 도착하니 강원도 산속의 맑은 공기와 별로 가득 채운 밤하늘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2층의 테라스가 달린 널찍한 휴게실에 둘러앉아 거의 밤을 지새우며 게임을 하였고 이튿날 다음 날 동이 트자 아침을 일찌감치 먹는 청년들, 아침시간에 잠에 빠진 청년들, 성실하게 밤잠을 자고 산책하는 청년들, 달음박질하며 운동을 하는 청년들 등 자유로운 아침시간을 보냈다.

오전 11시 정도 되어서 모두들 한 자리에 모였고 교육원 부원장님께서 기



질 테스트를 해주고 강의를 하셨다. 기질은 크게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의 4개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부원장님은 기질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보니 얼굴만 봐도 맞출 수 있다며 몇 명을 지목했으나 주님의교회 청년들에게서는 좀체 발견되지 않아 의아해 했다.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준 값진 시간이 되었다.

그 이후 부원장님의 지도 아래 30분 정도 낮을 들고 무성하게 뻗은 잡초들

을 열심히 제거하며 섬기는 모습 속에서 노동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자리마다 놓여진 꽃이 장식된 카드를 펼쳐 보았다. 카드에는 각각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후 2시경 버스에 올라 좁은 S자 고개를 내려오는데 바위가 도로에서 벗어나 움푹이질 않자 청년들이 내려 돌을 찾아오고 버스를 후진시키기 위해 앞에서 밀기도 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가을 MT를 통해 우리 청년 2부는 한 걸음 더 하나됨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가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복지선교부

재정지원에서 인력지원으로

복지선교부모임이 9월 28일(주일) 오후 1시, 대화의방에서 있었다. 이 날 모임은 복지선교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2004년의 후원여부와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방안 등에 대한 간략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단체 중 시설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곳을 제외하고 아직 독립이 불가능한 열악한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돌릴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지원 조정의 경우 현장 확인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러므로 교회기관이 연결이 되어서 개인적인 시찰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재정지원 위주이지만 사실은 그 외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자료를 수집하여 물품봉사와 현금봉사 등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필요한 손길이 많으나 늘 인력이 부족하므로 사역지와 봉사자간의 연결을 구축해줄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끝을 맺었다.

/ 허진 기자

제직부서장 회의

‘봉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10월 5일, 네트워크 사역팀에 관하여 제직부서장 회의가 있었다. 현재 주님의교회의 교인 수가 3,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제직부서를 통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교인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제직부서의 활동은 기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교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의 경우 그 일의 성격상 부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직부서로 할당되지 못하고 목회자나 교회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봉사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이 결국 목회자나 사무실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들여 외부인력을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많은 교인이 자원봉사에 필요한 정보와 마땅한 연결수단이 없어 손을 놓고있는 경우가 많고, 제직부서에서 각자의 달란

트와 관계없이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경우 봉사의 효과와 보람이 반감되고 있다. 한편, 교회의 관리부서는 봉사인원의 부재로 꼭 필요한 일은 결국 비용을 들여 해결하게 되어 관리비 지출이 증가하고, 교역자는 교인을 위한 목회성격의 일보다는 단순행정과 관리성격의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교인(새신자 때부터)과 그들의 달란트 및 봉사가능 시간(하루의 조각 시간 포함)을 파악하여 대내 및 대외 봉사를 위해 충분히 활용(수시로 생기는 일을 위한 대기 인력 확보)하도록 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사역팀을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주님의교회 네트워크 사역팀의 목표는 전 교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교회, 평신도 사역자(제자훈련을 거쳐)를 양성하는 교회, 관리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교회, 직분자·신앙의 연조가 높은 교인이 먼저 섬기는 본

을 보이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 사역팀의 활동으로 인해 봉사 희망교우를 정확하게 안내, 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봉사문화를 형성시킨다. 또한 개인별 달란트를 기초로 특정 사역팀과 연결이 용이하다. 조각 봉사시간을 서로 취합하여 봉사흐름을 이어준다. 이외에도 여러 봉사를 위한 봉사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역팀의 팀장은 남장희 집사이며 현재 4개조로 구성하고 있다. 1개조에 조장, 조원, 새신자담당자로 이루어지며 각 조마다 한 쌍의 부부와 청년, 30대에서 1명으로 구성된다. 2개조는 창구봉사, 2개조는 데이터분석·연락 등을 담당한다. 네트워크 사역팀에서 신앙심이 좋고 봉사경력이 있으며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봉사자를 더 선발한다. 사역팀의 봉사시간대는 주일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그리고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로 나뉘어 하고 있다. 이 사역은 기능·달란트를 고려한 봉사, 20·30·40대 교인 활성화와 이들의 봉사참여 동기 부여, 평신도 사역자 선발, 주중 봉사 활성화에 방향을 잡고 힘차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나의 신앙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경상북도의 제일 위쪽 강원도 바로 밑에 있는 봉화라는 오지인데 옛날 대구도청에서 봉화군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구정양장을 돌아 임지를 찾아오면서 '내가 어찌다 이런 시골구석까지 오게 되었나' 하여 울면서 들어오고, 몇 년지나 떠날 때에는 그 곳의 인심에 정들어 울면서 나간다는 곳인데 어떻게 팔십여년 전에 이런 벽지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이 없으니 갈만한 곳이 없었을 터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 여섯 살에 유년주일학교를 한 번 가본 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 그 뒤 60여년을 (변변치 않지만) '예수를 붙잡고' 살아오고 있다. 교회의 직분에 더 중하고 덜한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교회학교와 교사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때 여섯 살 먹은 아이 하나가 주일학교에 나오기 시작함으로 그의 동생들이 뒤를 따랐고, 어머니와 누나, 나중에는 손위의 형이 교인이 되었으며 (아버지는 조상제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종래 그냥 돌아 가셨지만), 지금 그 형제들의 아들 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니... (지금 세어보니 모두 42명)

살아오면서 기독교 교리에 자주 회의하기도 하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 다 싶을 때에는 교만을 코끝에 걸었고, 교회 밖의 기준으로 비추어서도 결코 도덕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허물투성이의 삶이었기에 때에 맞추어 내리치시는 주님의 막대기도 여러 번 맞았다. 종래에는 등근 지팡이로 건져 올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항상 잘난 척 하다보니 자기 판단으

로 인하여 일이 잘못되어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서야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매 달린, 지금 생각해도 얼굴 화끈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정말 나를 무척 사랑하셔서 별은 십분의 일로 깎아 주시고 상은 열 배로 불러 주셨다.

이순과 교회의 중간쯤인 이제야 철이 조금 들기 시작했는지 기도 중에 내 소리만 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듣기도 하게 되었다. 시인이 시며 존경받는 신앙인이신 구상 선생의 시를 감히 여기에 옮겨 적으면서 글을 맺는다.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
결레처럼 더럽고 추레한 내 마음을 / 그 물에 행구고 빨아보지만 / 절고 찌들은
뗏국은 빠지지 않는다 // 흐려진 내 눈
으로 보아도 내 마음은 / 아직도 명리에
연연할 뿐만 아니라 / 음란의 불씨도 어
느 구석에 남아 있고 / 늙음과 병약과
無事를 핑계로 삼아 / 태만과 안일과 허
위에 차 있다. / 김도복 장로

교사기도회

새학기를 기도로부터!

교사기도회가 10월 5일(주일) 오후 1시에 3층 소년부실에서 있었다. 약 70명 가량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찬양으로 기도회가 시작되고 김현령 전도사의 교회학교 자료정리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교회학교는 15년을 지내왔지만 주보, 수련회, 교사카드 등의 일부만 현재 남아있을 뿐이라 2003년 남은 달과 2004년을 계기로 자료를 계속 쌓아나가고 그 전 자료도 찾아가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번 2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교적정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교회 안에 작은 사진관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과 교사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사료보관실과 교육자료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곳에 서면자료 및 관련 물품을 보관하여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이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교사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 교육부를 소개하는 교사박람회 및 교사부흥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교사박람회를 위해 자기 부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교사 수급에 대해 다같이 동참하여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로 끝맺음을 하였다. 이어 교회의 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과 선생님 각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 허진 기자

몽골선교보고 세 번째 이야기(4회 연재)

몽골에서 일어난 베드로전도집회 '몽골추수 2003'



8월 22일 금.

11시 예정인 '아라글란트 한국센터 개관기념식'에 초대되어 집회를 위해 8시 호텔 출발. 90km 두 시간 이상을 버스로 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원시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일정이 바쁘다는 김경덕 부장님의 고압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버스를 세워 들꽃이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기도 하고, 누구랄 것도 없이 동시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라글란트교회는 강제로 몇 번씩 문을 닫아가며 윤순재 총장이 직접 개척한 교회다. 지금은 주민들의 신앙생활과 문화공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회를 핏박하던 군수 자신이 '자유센터'라고 지은 명칭을 '한국센터'로 바꾸자는 제의를 하고 이 고장 국회의원과 더불어 축하기념사와 한몽골 문화이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아라글란트교회와 목사님께 감사장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개관기념행사가 끝나고 문화센터와 같은 경내에 있는 교회로 장소를 옮겨 한몽골 축하공연이 있었다. 먼저 몽골 측에서 전통악기 공연이 있었고 한국 측에서는 우리 문화선교팀의 찬양과 위십맹신, 김성관 목사의 메시지, 팬토마임 '손(Hands)'과 '하나님의 막대기

(Sticks)', 그리고 성시낭독이 있었다.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조성관 집사의 '사랑으로'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노래는 울란바타르대학의 교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대학 출신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널리 보급해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뜻깊은 이 행사를 위해 우리를 예비하여 때맞추어 보내신 듯한 특별한 감동을 느꼈다.

오후 6시경에 윤순재 선교사에 의해 선교를 목적으로 1993년 한국어 학교로 태동, 현재 인문대·상경대·농공자원대 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울란바타르대학으로 돌아와 이계심 목사로부터 몽골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지하자원 보유국으로 열강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능성의 나라로서 건강한 물질관과 가치관형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창의적인 선교를 할 때라는 말씀을 들었다. 아마도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훈을 가진 울란바타르대학의 설립배경인 듯했다. 이 대학은 현재 문교부가 선정한 10대 명문대학으로서 대학체제, 교육과정, 학술연구와 교수방법 등이 타 대학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신망과 기대는 제한 없이 학과인가를 하는 실정이며, 헌신적으로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할 교수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월 23일 토.

몽골 왕의 주치의였던 이조시대의 명의 이태준 기념비, 자일승 승전기념탑, 징기스칸 촬영지, 몽골인 주거지 '겔(Gel)' 캄캄 방문 환담, 국립공원 테를지의 자연과 말타기, 공원내 휴양소에서 일박과 몽골 전통음식 '허르헝'

등을 체험하며 몽골 사랑의 주말 하루를 보냈다. 광활한 하늘에서 은하수 물결따라 별빛 쏟아지는 초원에서 해바라기 통기타에 맞추어 밤을 지새는 모닥불파티는 살아오는 동안에 가슴에 진 울어들어가 뚫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8월 24일 일.

제일교회로 향하여 테를지 국립공원 휴양소 출발, 10시경에 도착. 다과를 들고 주일학교 예배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인도하게 될 11시 대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Hands팀(박대길, 정종국, 김천희, 권순영, 김화순, 백정란)과 Sticks 팀(권오승, 우일강, 이진호, 권순영, 박미령, 이희순)은 세 번째 공연임에도 연습에 열중하는 모습이 었다. 설교말씀과 준비한 공연, 성시 및 간증의 순서 등 주일 공영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의 파동이 고조되어 갔다.

지팡이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하는 갑자생 이진호 소년의 눈물에 은혜를 입은 권오승 하나님의 눈물은 성도들 가슴의 빗장을 풀어놓았고, 마지막 진화주 집사의 간증은 억제했던 흐느낌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했다. 청소년 교도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한 청년은 진 집사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고백과 더불어 꼭 세례교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모든 집회에 동행하며 우리를 안내해온 현지가이드 미스 온은 그 동안의 감동이 폭발하여 흐느끼면서 주일에 가족에 끌리어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노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올 때쯤엔 세례교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주일 오전 집회가 끝나고 '몽골추수 2003' 행사장인 라담 스타디움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이번 추수제는 한몽골 문화축제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었지

만 3만 5천명이 참석한 일종의 대규모 전도집회였다. 천여명의 연합성가단이 스타디움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축구팀과 몽골 국가대표팀과의 경기, 몽골의 인기 보컬팀의 공연과 우리 나라 농악과 이대 문재숙 교수의 가야금 연주, 그리고 우리 팀의 조성권 집사의 공연과 아티스트로서의 삶의 주인이 음악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간증 등이 있었다. 몽골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표출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에 버금가는 기적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행사였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 찢림을 받아 어찌할꼬 회개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한 것처럼 김장환 목사의 메시지 후 콜링(calling)에 오천 여명이 일어섰다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이희숙 권사(1-7구역)

성도칼럼

왼쪽 방향지시등 하나가 섬김과 안전

항상 주일이면 새벽 미명부터 잠이 깨어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한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교우들과의 만남이 교회생활의 다시 없는 즐거움이다. 특히 주차안내 봉사를 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사와 함께 안내를 한다.

교우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명확한 교통규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글을 쓴다.

1. 정문에서 안전운행 절차

어느 교회이든 예배 시작과 끝이 분주하지만 주님의교회는 특히 광활한 주차장에서 진출입로가 정문 한 곳으로 제한되어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민간차량은 정문 앞 도로가 많은 교인들의 진출입 통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문 앞 주도로 상에서 시속 60~8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위험이 많다. 이를 다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우들이 아래와 같은 규칙에 동참해야 한다.

첫째, 교회 진출입 시는 서행하고 항상 방향지시등을 켜서 안전경고 후 주행한다.

둘째, 교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정문 앞 주차장을 금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행자 및 봉사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 오토바이 배달원에게까지 질책을 받게 된다.

셋째, 부득이 노약자 및 교회물건 배달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일시 이용되거나 성도들의 택시 승차차공간으로 이용되므로 역시 좋은 방법은 못된다.

넷째, 자가용 차량이 정문 앞에서 회전할 경우 위험하므로 삼가야 한다.

2. 교회 지하 주차장(B1) 주차 제한
지하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극히 제한되어 휠체어 장애인 차량 및 교회운영차량(식당 및 보일러 기계실차)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3. 성전(강당) 주변 주차 시 주의점
주차는 오신 순서대로 주차를 하되 건물에 전면 주차를 해야 한다. 교회 앞 삼차로나 교우들의 주 통로상에는 주차를 제한하나 주차 시는 브레이크를 풀고 타이어를 정렬주차하거나 키를 꼽아두어야 한다. 또 2, 3부예배 때는 진입 및 진출 차량의 흐름과 안전을 고려해서 정문 진입과 동시에 좌회전하여 성전 벽 내부도로를 따라 성전 뒤쪽 도로를 이용하여 운동장 주차를 해야 한다.

4. 운동장 주차 시 서행과 안내
운동장 주차는 넓고 주차가 용이하지만 입구에서 서행을 해야 한다(시속 20km 이하). 간판이나 주차봉사집사 완수신호에 따라 입구부터 학교 교실쪽(지휘대)까지 대간 간격을 유지하여 주차한다. 예배 후 귀가 시 다른 주차된 차량보다 가장 늦게 빠져나가므로 기다리는 협조가 요망되고 운동장 입구에서 우회전 도로를 사용한다. 특히 오후 1시부터 교회학교 축구팀이 축구장을 이용하므로 그 이후는 주차할 수 없다.

5. 체육관 주위 주차
체육관 주차장은 건물과 건물 사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므로 브레이크를 풀고 타이어를 정렬한 상태로 주차하되 봉사집사의 수신호를 받아 진입해야 쉽게 주차되고 상대 차량에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

6. 악천후(비, 눈)시 주차방법
주일날 가장 불편을 주는 것이 악천후(비, 눈)시 주차문제이다.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어 근거리 거주자나 정상체력을 가진 분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1부예배 때도 다소 주차장에 제한을 받지만 2, 3부예배 때는 삼분의 이(대부분)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 장애우나 노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의치 못해 차를 가져오신 분은 교회 외곽 도로변(뚝방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지체이다. 교우들이 교회시설을 충분히 애용하고 활용하도록 골고루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시설이 제한되고 일정한 규칙을 지켜줘야 좋은 시설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 연구하고 안전하게 개발해서 교우들이 좋은 시설을 사용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교우들의 차량을 쉽게 식별해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있다. 미 부착하신 교우들은 봉사집사나 차량부로 신청교부 받아 운전석 안쪽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길 바란다. / 신광이 집사(차량봉사부)

커피봉사! 나의 기쁨과 행복

3부 찬양대원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린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나 기나긴 방황을 한 끝에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할 때 우연히 주님의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고 권사님은 주님의교회 3부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주님의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찬양대로 봉사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미쓰리, 정신여고 나왔지. 다시 학교 다니는 기분 나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사랑하시겠다."

그 무렵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기보다 권사님의 살뜰한 권면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나를 찬양대에 앉게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을 많이 주시고 찬양과 성극에 동화되어 교회에 나갔던 심정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찬양대로 봉사하다보니 무엇보다 일상의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교회에도 적극성을 갖게 되며 믿음도 어느새 자라게 되어 찬양도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택정하신 것이지만 3부 찬양대와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권사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나는 찬양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일이 커피를 봉사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찬양대원들의 마실 커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커피 준비를 하려면 다른 대원들보다 30분 정도는 교회에 일찍 나와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맑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을 나누는 '선한 이웃'

주님의교회 복지선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비영리법인으로 장기기를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안겨주고자 1991년 1월 22일에 창립되었다.

운동본부는 각막기증과 뇌사 시 장기기증, 시신기증, 조직(뼈, 연골, 피부 등)기증 그리고 살아 있을 때 신장과 골수를 기증하는 운동을 확산시켜왔다. 본부 내에는 네 개의 은행이 있는데 사랑의 골수은행, 사랑의 장기은행, 사랑의 각막은행, 한국 조직은행 등이 있다. 각 은행과 후원회는 홍보활동과 세미나 개최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부에서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이식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새생명나눔회'를 열어 서로간의 유대 및 친목을 다지기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영세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무료 투석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서울과 인천과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빛의 전화(1588-1589)'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아래)에 접속하면 온라인상의 장기기증에 대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하다. 장기기증이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이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홈페이지 : www.donor.or.kr



정화된 마음으로 교회에 30분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음으로 주일예배 찬양 준비를 합니다.

또 커피를 분배해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과의 정겨운 이야기도 나눕니다. 모두와 친숙해집니다. 커피물을 받으러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 식구들과도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이 교감됩니다. "미쓰리, 오늘 커피물은 참 잘 끓였어. 조심해 가지고 가." 마치 교회가 온통 가족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말씀도 주님 사랑! 찬양도 주님 영광! 교우들도 모두 사랑의 공동체로 느껴집니다.

커피를 봉사! 이렇듯 작은 봉사가 제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고, 기쁨과 행복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이주연 자매(청년부)

수해지역 자원봉사후기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



나의 이번 수해지역 자원봉사는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덜어보고자 도피하듯 그렇게 시작되었다. '가서 보자. 산산이 부서진 처참한 삶의 터전에 비하면 이 마음의 고통쯤은 위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맘껏 일하면서 정신없이 며칠 보내고 나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출발했다.

수해지역에 도착해 희망의 집짓기를 하면서 연약해보이는 나의 첫인상 때문에 내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띄었던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느껴졌다. 그

렇게 화해하지 못한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벽들을 나르고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 이틀, 사흘... 내 자신이 부끄러울수록 다른 분들은 더 위대해 보였다. 어느 누구랄 것없이 모두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섬 없이 일하였고, 곳은 일은 모두가 나서서 하려고 하셨다. 힘들다 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하면서도 얼굴은 기쁨과 감사로 환하게 빛났다. '아! 사람이 정말 아름답구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지구나. 나도 아름답게 되어야 할텐데... 나도 저 분들처럼 참만해져야 할텐데...'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을 책망했다.

그런데 변화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왔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잘나고 못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쩌보면 하나님께 과점죄로 찍혔음직한 마음자세

가 아닌가. 도피하고 싶어서, 위로하기 보다는 위로 받고 싶어서 온 내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 내가 위로 받고자 기대한 곳에선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 모든 고통이 씻겨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의 의지로 손들고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어 그 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쓴 나물을 조금 집어넣어 전체적으로 요리의 훌륭한 맛을 이루어 내듯이 나의 쓴 눈물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봉사팀에 적절하게 넣어주셔서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남아있는 것이 가시뿐이라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진 것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 최명숙 집사(8-9구역)

교회소식

▶오늘부터 본당 입구 자원봉사연결 안내데스크가 운영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안팎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상담을 받습니다.

▶성지순례 준비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학기 「나의 성지를 찾아서」를 수강하신 분 외에도 성지순례를 희망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의견을 수렴하여 순례일정, 순례코스, 여행사 섭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아세례신청 및 입교, 세례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유아세례식은 11월 5일, 입교 및 세례식은 12월 3일 각각 오후 8시 수요성경공부시간에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은 10월 1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0월 19일,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에 자모예배실(1층 중교무용실)에서 2회 있을 유아세례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교 및 세례를 원하는 분은 11월 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에 제3집회실에서 4회 있을 입교 및 세례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는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가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례는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직회가 10월 15일(수) 오후 8시 수요성경공부 마친 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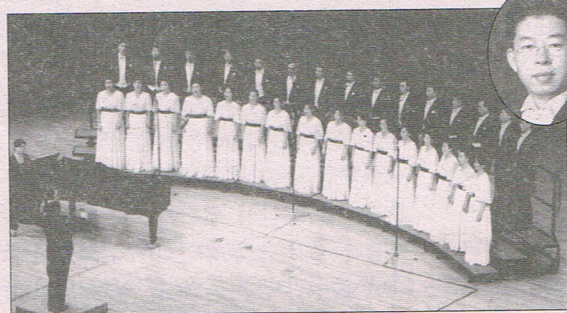
▶좋은책집기모임이 10월 12일 11시에 친교실(1층) 앞에서 모여 토의장소로 이동하여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www.pcltv.org에서 현재 시험가동중입니다.

유소년축구 홈페이지도 참고 바랍니다. (youthsoccer.cyworld.com)

▶도서관이 5층에 개관되어 성도를 기다립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아동도서관도 비치되어 있고, 계속해서 도서관을 받습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박치용 안수집사(사진)가 상임 지휘자로 있는 서울 모테트합창단의 제5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모테트합창단은 맑고 깨끗한 음색과 정제된 화음 그리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순수합창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합창단으로 평가받아 왔다. 자연스런 발성, 풍부한 배음, 환상적인 하모니로 대변되는 깊은 울림은 흔탁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영감과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Bach의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이시며'와 Liszt의 '하늘의 복' 그리고 Mahler의 '젊은 날의 가곡 중에서'가 연주되며, John Rutter의 '시편 23편' '시편 47편' 등도 연주된다. 돋보이는 출연자로는 소프라노

에 한나숙 집사, 메조소프라노의 김청자 교수, 바리톤의 박홍우 교수가 있고 반주로는 2부 찬양대의 송은혜 집사가 맡는다.

깊어가는 가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교회음악의 올바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한국 합창음악의 리더로 성장해온 서울 모테트합창단의 아름다운 연주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티켓구입은 티켓링크(ticketling.co.kr), 티켓파크(ticketpark.com)에서 가능하다.

/ 정해춘 기자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틀린 말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복에 관한 표현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사람은 축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복을 비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의 성구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비는(祝福)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降福) 분임을 잘 밝히고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개역한글판 창 12:3) "그가(멜기세덱)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개역한글판 창 1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하나님! 복 주옵소서' 또는 '복 내려(베풀어) 주옵소서'로 바로잡음이 타당하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정선인 피아노 독주회



1988~1992년까지 교회 반주자로 수고한 정선인 양(정재경 장로의 차녀)의 피아노 독주회가 10월 19일(주일) 오후 3시에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그동안 서울예고,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입학하여 Diplom을 취득하고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에서 Konzertexamen 과정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세계적인 현대 음악가인 Steffen Schleiermacher의 지도 아래

현대음악 Konzertexamen 과정을 졸업하였다. 국내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피아노 연극 지경을 넓히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Leipzig 국립음대대강당개관기념연주회, 멘델스존 생가에서 개최된 쾰른 그 서거 50주년 기념연주회 등 수많은 협연 무대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교회 창립 때부터 8년간을 성가대 반주를 맡아하기도 하였다.

전도가 총망되는 정선인 피아노 독주회에 많은 교우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티켓구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티켓링크(ticketling.co.kr), 티켓파크(ticketpark.com)에서 가능하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